

“대중-시인 간 디카시 정착 되도록 노력”

한국디카시인협회 광주지부 본격 창립 활동 돌입 초대 지부장 김완·사무국장에는 김령 시인 선임 정관 확정·프로 신설·디카시집·시화전 등 추진도

오늘날 디카시는 생활사의 하나를 말한다. 일상 속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 등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해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형태를 말한다.

디카시는 1990년대 필름 카메라가 퇴조하고 디지털카메라가 등장. 필름 대신 내장된 메모리카드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길이 열리면서 필름을 인화하고 현상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이미지를 불러와 재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디카시 생성 조건을 갖추게 됐다든 설명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를 압도하고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이미지를 저장하기도. 자율 수도 있어 이미지의 활용이 수월해졌다.

시와 사진의 만남인데 오늘날 버전이 열린 셈이다. 시와 사진의 만남은 디지털 시대 전에는 분업화가 돼 있었다. 시 따로, 사진 따로였다.

이것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장르가 디카시다. 디카시는 대략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0여년 전후로는 디카시만을 위한 문예지 등이 발간되면서 발표창구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문학 장르에서 가장 후발 장르로 첨단문명이 뒷받침돼 가능하게 된 장르로 이해하면 된다. 아직 정통 장르의 위상이나 체제만큼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전국 조직망 확보를 위한 전진군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도 디카시를 추구하는 시인들을 주축으로 모임체가 결성돼 주목된다. 지난

19일 오후 (사) 광주평화포럼 사무실에서는 백수인 시인(전 조선대 교수)과 김규성 시인(담양 글 올날는집 대표), 함진원 시인, 한영희 시인 등 기존 시인과 수필가 및 동화연구가 등으로 활동을 해온 차꽃(곽성숙) 시인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디카시인협회 광주지부가 창립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한국 디카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 출동했다.

한국디카시인협회 수장을 맡아 부준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종희 회장(문학평론가)과 이날 창립식 사회를 맡은 이기영 사무총장, 한국 최초 디카시집 ‘고성 가도’ 등을 펴내 디카시 보급에 힘쓴 이상욱 소장(한국디카시연구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전국적으로 디카시 대중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최광민 계간 ‘시와 경계’ 발행인(두원공대·경남정보대 겸임교수), 연세원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초대 지부장에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의사 시인으로 활동 중인 김완 원장(협심내과)이 맡았다. 사무국장은 김령(김혜영) 시인이 맡기로 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정관 확정, 지부장 위촉장 전달 및 깃발 전달, 김종희 회장 축사, 신임회장 인사말, 회원 소개, 떡 케이크 절단, 기념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백수인 전 교수는 “디카시를 보면서 예술장르가



한국디카시인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사) 광주평화포럼 사무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광주지부를 본격 출범시켰다. 사진은 출범식에 참여한 회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이렇게 분화 발전하기도 하고, 융합하는 것 같다. 이제 디카시를 보면 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디카시가 짧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함축적이고 직관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디카시인협회 이기영 사무총장은 백 전 교수의 말에 이어 “세계적으로 한국 디카시가 확산돼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더욱더 확산되리라 믿는다. 광주지부가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디카시인협회 광주지부는 당분간 신생 단체 출범을 한 만큼 뿌리를 내리는데 주력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향후 광주문화재단 등 지원 기관으로부터 예산

을 신청, 유지하고 디카시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회원 디카시집 발간과 디카시 결구시화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완 지부장은 지부 운영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지부장을 맡게 돼 조직을 뿌리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어 기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직은 처음이라서 서툴고 미미하다. 그러나 디카시가 K-컬처의 선두에 서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작은 힘이지만 대중들과 시인들 사이에서 광주디카시가 잘 정착이 되도록 힘을 보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디카시인협회 광주지부의 출범에 따라 초보 단계나 마찬가지인 지역 디카시단이 활성화와 대중화 등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kwangnam.co.kr

CULTURE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지역 예술인 ‘전시공간 지원’ 빛고을시문화관...29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빛고을시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전시를 진행할 광주지역 예술인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전시실은 185㎡(약 56평형) 규모로, 층고 3.8m, 천장고 3.6m에 이르며, 전시 외이어 50개, 조명기기 5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모집은 그래픽, 회화, 영상, 설치, 공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공간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팀·단체(총 8팀)에게는 화차당 198만원의 전시 지원금과 함께 전시실 및 부대시설 이용, 홍보물 제작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전시는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해 화차당 총 1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지역 예술인으로, 개인 또는 6인 이하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신청자는 예술활동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팀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신청자만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시공간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rurunet@gjc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9일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김다경 기자

13세기 몽골로 떠나는 ACC 인형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성욱)은 ACC 어린이·청소년 공연 ‘아름을 깨물었을 때’를 오는 5월 3~4일 어린이 극장에서 선보인다.

‘아름을 깨물었을 때’는 한국·몽골 수교 35주년 기념 및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춘천에서 열리는 ‘제24회 국제유니마총회 & 춘천세계인형극제’와 연계해 ACC, 춘천인형극제, 몽골 국립인형극장이 공동 개발한 인형극으로 통명의 ACC 이야기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다.

‘국제유니마(UNIMA) 총회’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인형연맹인 유니마(Union Internationale la de Marionette)에서 4년을 주기로 여는 세계인형극축제다. 5월 24~25일 춘천 축제극장 뽕에서 공연을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다.

작품은 몽골의 전통 우수곡자인 아름을 깨문

순간 13세기 몽골로 떠나며 시작된다.

고향에서 불모로 잡혀와 몽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려 왕자 지우와 고려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우의 몸종이 된 사르, 몽골의 실존 인물인 쿠투룬 공주가 등장해 아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세 명의 아이는 저마다의 외로움 안고 살며 함께 떠난 모험 속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넓히며 성장한다.

공연은 원작 동화책에 한국과 몽골의 설화를 추가 및 각색해 양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몽골 국립인형극장과 함께 인형을 제작해 대사 없이 선보인다.

몽골 국립인형극장은 1948년 설립된 몽골의 유일한 전문 국립 인형극장으로, 15명의 단원이 상주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야문화전당, 공연 ‘아름을 깨물었을 때’ 내달 3~4일 춘천인형극제·몽골 국립인형극장 공동 제작 인형극

이번 작품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전서연 연출은 다수의 인형극과 국내외 뮤지컬을 연출한 바 있다.

ACC는 ‘ACC 어린이·청소년 공연개발’ 사업을 통해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ACC만의 독창적인 어린이·청소년 공연을 제작·개발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제작 이후 유통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춘천, 몽골과 공동으로 제작·유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 중인 ‘ACC 시즌 예술인’이 출연하는 첫 번째



작품이다.

김성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아름을 깨물었을 때’는 몽골 국립인형극장의 인형 제작 기술, 춘천인형극제의 세계 인형극 네트워크, 그리고 ACC의 창작 노하우를 활용한 독창적인 인형극”이라며 “몽골의 이야기,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설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를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연 관람 연령은 5세 이상이며 예매는 ACC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입장료는 1만원.

김다경 기자 alsalsdl94@kwangnam.co.kr

1600년을 뛰어넘은 신비로움

백제의 칼 ‘칠지도’ 日서 공개

유리 전열장 앞에 선 사람들이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 앞에 있는 건 신비로운 칼 한 자루.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물체를 중심으로 좌우로 뻗은 6개의 가지는 위용을 드러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교류사를 밝힐 열쇠, 칠지도다. 1600년 전 백제 최고 장인이 만든 칠지도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나라현 나라국립박물관이 개관 130주년을 맞아 공개한 특별전 ‘초·국보 - 영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전시품 중 하나로서, 박물관 전시에 나온 건 2015년 규슈 국립박물관 이후 약 10만 년이다. 나라국립박물관 측은 “백제 왕실이 왜왕을 위해 제작한 것”이라며 “1600년의 시대를 넘어 한일 교류 실재를 알리는 소중한 유물”이라고 소개했다.

칠지도는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는 이름의 유물이다.

연합뉴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알로에 베라겔 함유율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함
그린알로에 인형극제는 인형도 무인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입니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